

전남도,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지역 오명 씻는다

전수조사 통해 실태 파악하고 노동착취 근절대책 종합적 관리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 개최...정책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전남도가 도내 염전근로자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를 구성해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28일 전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 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함께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를 전남도청에서 열었다.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계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관별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염전을 둘러싼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염전근로자 대상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가 지금까지는 천일염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천일염 생산의 모든 과정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봄맞이 나무 심으세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8일 오전 광주 서구 벽진동 호남조경수 유통센터에서 열린 '2022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서 조경수협회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전달할 황금사철나무, 목수국, 사인머스켓 묘목을 정리하고 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다음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산배부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강진 금곡사 벚꽃축제 취소 상춘객 위해 벚꽃길은 개방 4월1일부터 10일간 야간조명도

강진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말 개최 예정이던 '제5회 강진금곡사벚꽃삼삼리길축제'를 취소했다.

군은 공식적인 축제 일정은 취소됐지만 4월1일부터 10일까지 벚꽃길을 찾는 군민과 나들이객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시설, 야간조명, 버스킹공연, 편의시설 등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조명은 4월1일부터 10일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켜지며, 기간 이후에도 조명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버스킹 공연은 4월2일부터 3일까지 낮 12시와 오후 5시에 매회 1시간, 총 4회 공연도 진행된다.

강진금곡사벚꽃삼삼리길은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려한 삼삼리 벚꽃길로 매년 봄을 느끼기 위해 군민들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이다.

윤성일 강진군 문화예술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파랑새 메신저' 모집

광주 서구 4월 8일까지 접수

광주 서구가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랑새 메신저' 사업에 참여할 치매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파랑새 메신저 사업은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과 말벗 활동을 하며, 단시간 치매환자 보호와 인지 재활 활동을 제공함과 더불어 경로당 어르신, 치매환자 가족과 함께 텃밭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참여 신청 대상은 치매어르신 돌봄에 관심과 이해가 높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광주 서구주민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 서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2-350-4765)로 접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권 교통 안전문화 정착 종합대책 수립

익산국토청, 사전예방 체계 전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호남지역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 '익산(IKSAN)-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익산국토청이 호남지역 교통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도로 인프라 구축에 이어, 대형·소형차 등 교통수단 안전관리까지 망라한 호남권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다.

'익산(IKSAN)-전략'은 5대 전략을 단계별로 구성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이

다. 이번에는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5단계로 체계화해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조사부터 현장 안전점검 및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로 구성해 교통사고 감축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그동안 도로선형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위주의 교통관리 대책에서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안전관리까지 연계하게돼 교통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욱 익산국토청장은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지금까지 사후조치 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체계가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남구,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기업 모집

광주 남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호천1지구 LH 3단지과 호천2지구 7단지 내에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기업 모집이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로 구성된 단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료와 복지, 보육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야하며, 건축법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가능한 업종 및 단지 내

슈퍼와 세탁소 등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은 업종이어야 한다. 인큐베이팅 공간은 LH 3단지에 사무실(71.26㎡) 1곳과 LH 7단지에 41.31㎡ 크기의 2곳이다.

입주 기업에게는 공간 사용료가 면제되며, 2년간 사용한 뒤 재심사를 거쳐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남구는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같은 달 7일까지 입주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지역경제과(☎607-273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